

김윤하 전남대 산부인과 교수, '윤한덕 상' 수상

전국 고위험 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발족에 기여

"산부인과 의사는 '임신부와 태아' 두 생명을 동시에 살펴야 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산모와 신생아들이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급의료 분야에 헌신했던 윤한덕 센터장의 숭고한 정신을 마음 속에 새기며 열정을 다해 진료에 임하겠습니다."

지역 사회 고위험 산모 진료에 앞장 서고 있는 김윤하 전남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제4회 '윤한덕 상'을 수상했다.

윤한덕기념사업회(회장 서해현 서광병원장·이사장 허락 전남대 교수)는 지난 4일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화순캠퍼스에서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제6주기 추모식'을 열고 김윤하 교수에게 '윤한덕 상'을 수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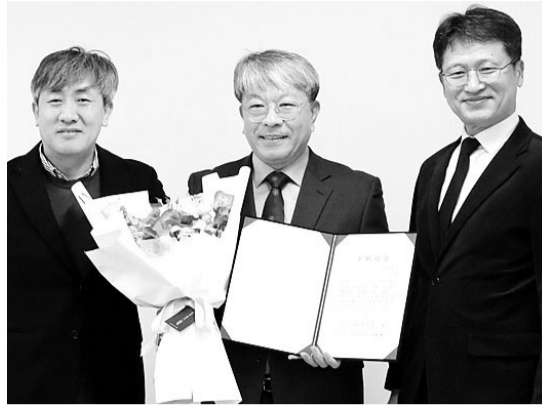
'윤한덕 상'은 지난 2019년 2월 명절 연휴 기간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키다 과로사한 전남대 출신 윤한덕 센터장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21년 제정한 상으로, 첫 수상자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었다.

김윤하 교수는 필수의료인 산부인과 분만 분야에서 40년 간 헌신해온 의료인으로 조산·전치태반·임신 중 고혈압질환·임신성 당뇨·어려운 제왕절개술 등 고위험 임신부 진료에서 광주·전남 지역 '최후의 보루'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떠난 지난해 고위험산모 제왕절개수술 283건을 비롯, 312건의 수술을 집도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17년부터 전남대병원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전국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대한산부인과학회 고위험임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우리나라 코로나19 감염 임신부 치료 프로토콜을 만들기도 했다.

이밖에 2019년부터 세계산부인과 총연맹(FIGO) '안전한 모성과 신생아 건강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돼 '임신 중 백신접종' (FIGO 성명서)을 발표하는 데 참여하기도 했다.

서해현 윤한덕기념사업회장은 "한국 응급의료계의



'윤한덕 상'을 수상한 전남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김윤하 교수(가운데)와 서해현 회장(오른쪽), 윤웅 전남대의대 학장(왼쪽). <전남대병원 제공>

선구자였던 윤한덕 센터장의 업적을 존중하는 이 상을 지역사회 고위험 산모 치료에 온 힘을 다한 김윤하 교수에게 수여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김 교수의 희생, 봉사, 책임 정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전남장애인체육회, 한전과 취업지원 협약



광주시에장애인체육회(회장 강기정 광주시장)와 전남도장애인체육회(회장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5일 장애인체육 선수 취업 지원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와 손을 맞잡았다.

이번 광주·전남장애인체육회 분사 30층 경영회의실에서는 이상갑 광주시문화경제부시장, 명창환 전남도행정부지사, 안중은 한전 경영관리본부장, 송춘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부장, 서은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장이 자리한 가운데 '장애인체육 선수 취업지원 업무협약식'이 진행됐다.

이번 협약식에 앞서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월 23일 공개 채용을 통해 장애인체육회 12개 종목·선수 29명, 도장애인체육회 17개 종목·선수 30명을 채용한 바 있다.

업무협약 내용은 ▲장애인체육 선수 고용 증진 및 체육활동 지원 ▲훈련 및 대회 참가 등 장애인체육 진흥 ▲장애인체육 선수 고용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들은 장애인체육 선수의 안정적인 훈련 환경을 조성하고 추후 한전 자회사 등을 통한 취업지원 확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농협전남본부, 이달의 새농민상 부부 3쌍 선정



농협전남본부(본부장 이광일)는 2월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로 이중호·박경미 부부(장흥), 정용현·김순옥 부부(영광), 최영림·이금례 부부(해남)를 선정했다.

이씨 부부(복리농장)는 무인행기(드론)를 이용한 농작물 방제작업으로 농업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를 인정받았다.

정씨 부부(황금농장)는 우렁이농법으로 친환경 농작물 재배로 생산소득 증대에 모범을 보인 점 등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씨 부부(다우리농장)는 '땅끝포코'의 특허 등록의 공을 인정받아 '세계농업기술상' 협동농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김지희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국 법의학 선구자'

문국진 고려대 교수 별세



국내 법의학계 선구자로 불리는 문국진(사진) 고려대 명예교수가 지난 4일 별세했다. 향년 99세.

대한민국학술원에 따르면 1925년 3월 평양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컬럼비아 파시픽대학에서 명예 법학박사를 받았다.

고인은 우리나라 법의학의 기초를 세운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무관·법의학과장 등을 지냈고 1970년 고려대 의대로 자리를 옮겨 후학을 양성했다. 고인은 특히 법의 병리학을 주로 연구하며 '사후 경과 시간을 근육의 pH 곡선으로 측정하는 법', '수중 시체의 입수 장소 판정' 등 법의학 감정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동구농아인쉼터, 사랑더하기 성금 전달



광주시동구농아인쉼터(지회장 조점래)가 한국 수어의 날(2월 3일)을 기념해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사랑더하기' 성금 22만 3690원을 전달했다. 5일 광주시동구농아인쉼터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박흥철 광주사랑의열매 사무처장, 조점래 광주시동구농아인쉼터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쉼터 이용자들이 지역사회 돌봄 아움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 성금을 마련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TV프로그램 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KBS1	KBS2	MBC	KBC/SBS
0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레블출력(재)	00 MBC 뉴스투데이	00 모닝와이드
0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생생정보 스페셜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08	25 아침마당	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친절한 전주씨(재)	40 닥터 365 50 좋은아침
09	30 KBS 뉴스	30 신데렐라 게임(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뉴스특보
10	00 KBS 뉴스특보 30 비상계엄 내란 혐의 국정조사	1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인간극장 스페셜	45 비상계엄 내란 혐의 국정조사 3차 청문회	
11		1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20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재)		
12	00 KBS 뉴스특보	40 수목드라마 키크키크(재)	00 12 MBC 뉴스 25 오늘N(재)	00 SBS 12뉴스 25 만화 네트워크 뉴스 50 김원희의 원더랜드(재)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별별다방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5 동네 한 바퀴(재)	55 2시 뉴스 외전	
2	00 KBS 뉴스특보 30 방과 후 초능력			00 뉴스브리핑
3	00 우리 집 곰곰아지(재)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재)	00 KBS 뉴스타임 15 월드 24 45 브레드와 월크의 세계여행(재)	55 기본 좋은 날	
4	00 시사건건	00 TV 유치원(재) 30 누가누가 잘하나	55 MBC 뉴스특보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특보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지오그래피 스페셜	30 농친 여행 따라잡기	25 보통의 존재	00 SBS 오뉴스 50 플라레스큐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40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 특집다큐 타이거즈:왕조의 시작 스페셜	05 위시켓 20 KBC뉴스와이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신데렐라 게임	05 생방송 연극복권 720+ 10 친절한 전주씨 40 MBC 뉴스데스크	15 토크콘서트 화통 스페셜 50 SBS 8 뉴스
8	30 결혼하자 맹꽁아!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9	00 수목드라마 키크키크	00 시사토론 시사광로	00 와 진짜 세상에 이런일이
10	00 다큐 인사이트 50 KBS 뉴스라인W		00 구해줘! 홈즈	2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1	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05 아이 러브 스포츠 30 개그 콘서트 스페셜	40 문화콘서트 난장	50 테마스페셜(재)
12	00 KBS 중계식	45 KBS 재난방송센터(재)	4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50 휴먼다큐 마냥 이쁜 우리맘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8:1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	18:3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재)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19:20 고향한국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건축탐구 - 집(재)	19:50 PD로그
07:00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07:15 무지개 강아지 달린의 모험	13:45 EBS 평생학교 1교시	<사바이 사바이 태극 -느릿느릿 행복하게 중부 여행>
07:30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14:30 EBS 평생학교 2교시	21:35 한국기행
07:45 하프와 친구들	15:15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도란도란 모락모락 4부 종덕 스님의 겨울나기>
08:00 당동명 유치원	15:55 블록스	21:55 글로벌 가족 일기 - 대문 밖은 사파리
08:20 최고다! 호기심 딱지	16:10 당동명 유치원(재)	22:45 다큐멘터리K
08:50 도래미 프렌즈	16:30 페파 피그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05 골짜기와 처음 수학	16:40 마사와 곰	24:0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09:20 사내수공업 가수 - 다비드 붐	16:55 하프와 친구들(재)	24:40 EBS 비즈니스 리뷰
09:40 글로벌 가족 일기 - 대문 밖은 사파리	17:10 최고다! 호기심 딱지(재)	
10:30 한국기행(재)	17:40 레인보우 버블제(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6일(음 1월 9일 丙午)

<p>子</p> <p>36년생 눈에 떠더라도 못 본 채하고 있는 것이 더 많다. 48년생 진실은 짐승으로만 통한다는 사실을 알라. 60년생 별 것 아니니 놀랄 것까지는 없다. 72년생 만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자. 84년생 썩 좋은 결과라고 보기는 힘들다. 96년생 어떠한 형국이 되든지 간에 시종일관 단단하게 대하는 것이 능률적이다. 행운의 숫자 : 41, 50</p>	<p>午</p> <p>42년생 지금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의 차이를 볼 것이다. 54년생 전혀 예상치 못한 형국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 66년생 주된 일에 매진하다 보면 부수적인 사항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78년생 무리 없이 잠재우는 것이 무난하다. 90년생 모색하다 보면 속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02년생 완전하게 고칠 필요가 있었다. 행운의 숫자 : 46, 77</p>
<p>丑</p> <p>37년생 결실을 보기 시작하는 수확기에 접어들고 있으니라. 49년생 결정적인 호기가 다가오고 있으니 놓치지 않을 것이어야 한다. 61년생 지금, 보완하지 않으면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73년생 표리부동하니 주의하지 않으면 속는 다. 85년생 우선 잘 적응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알라. 97년생 타산자식으로 삼을 만하다. 행운의 숫자 : 12, 73</p>	<p>未</p> <p>43년생 무의미적인 오류가 나타날 수도 있다. 55년생 외부적인 조건에 흔들리지 말고 뜻대로 조처하라. 67년생 현재의 판세에 있어서 당해 사항 외에 굳이 여유분을 돌릴 필요는 없었다. 79년생 집적이 가더라도 굳이 내색할 필요는 없다. 91년생 반드시 고쳐야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03년생 비로소 실효성을 획득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28, 62</p>
<p>寅</p> <p>38년생 경시할 때에는 액을 당하게 되어 있다. 50년생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반드시 호전 될 것이다. 62년생 기본에 충실했을 때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것이다. 74년생 빈틈을 보인다면 어느 한 순간에 기괴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다. 86년생 대세에 따르며 백년 나을 것이다. 98년생 외형만 드러내도 의미는 충분하다. 행운의 숫자 : 31, 97</p>	<p>申</p> <p>44년생 과거의 앙금을 털어버리고 흔연히 대하라. 56년생 지금껏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 서야겠다. 68년생 어쩔 수 없이 어울려야만 하는 고통이 있다. 80년생 거슬러다도 놓게 될 것이니 부담감 갖지 마라. 92년생 잃었던 것들을 회복할 수도 있는 양상이니라. 04년생 초심을 잃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상부의 관건이다. 행운의 숫자 : 00, 76</p>
<p>卯</p> <p>39년생 시간의 안배를 잘해야 실행에 차질이 없다. 51년생 자기 발전으로 이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63년생 들고 도는 세상의 이치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 75년생 매듭이 풀리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겠다. 87년생 근본적인 처방을 하지 않는다면 불행하움이 생긴다. 99년생 간절히 필요로 했던 이가 스스로 나타난다. 행운의 숫자 : 13, 81</p>	<p>酉</p> <p>45년생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으니 수용하는 것이 옳다. 57년생 상대적인 변수가 나타나서 예상 밖의 판도를 구성할 수도 있다. 69년생 서로 다름을 인정하되 화목함이 바람직하다. 81년생 진행되고 있다면 중단시킬 필요가 없다. 93년생 방법까지 고려한다면 금상첨화이다. 05년생 비로소 실효성을 획득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43, 96</p>
<p>辰</p> <p>40년생 내일 있게 했을 때 자기 발전을 피하게 되는 법이다. 52년생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로 보람을 느끼게 된다. 64년생 물꼬가 트이면서 연쇄적인 작용을 일으키는 기쁨이 있으리라. 76년생 길한 여진이 조성되어야 성과를 거두는 법이다. 88년생 준수해야 할 것에 소홀해서는 아니 되겠다. 00년생 얻는 바가 상당히 많았다. 행운의 숫자 : 27, 64</p>	<p>戌</p> <p>46년생 전연 뜻밖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58년생 실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 70년생 최후의 결정은 자신이 직접 내리는 것이 옳다. 82년생 한시름 놓게 될 것이니 부담감 갖지 마라. 94년생 겸손하다면 더 존귀한 위상에 놓인다. 06년생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풍성한 성과를 거두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17, 89</p>
<p>巳</p> <p>41년생 똑같이 인식한다면 큰 혼란으로 이어지느니라. 53년생 조금해하지 않는다면 길운을 맞이하리라. 65년생 바라보고만 있어도 능히 효과가 있다. 77년생 만인이 부러워하는 경쟁이 따를 것이다. 89년생 생각하고 있는 바보다 더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알라. 01년생 이치에 부합하고 있는 지 따져보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1, 75</p>	<p>亥</p> <p>47년생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전면에 나서는 형상이니 대응해볼 만한 동세이다. 59년생 부실함은 단순한 수단에서 비롯되는 법이다. 71년생 의문의 실재를 파악하게 되는 기쁨이 있다. 83년생 앞초가 있는 급류로 휩쓸려 가는 형상이다. 95년생 기대치에 못 미치어 실망하는 판도이다. 07년생 마음속에 새겨져 있지 않음이 옳다. 행운의 숫자 : 14, 74</p>